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1, 베드로전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 역사와 문학의 베드로전서 31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펜터킷 행 인가요? 응. 퀴즈 하나 할까요? 지금 말하면 뜬금없는 퀴즈가 아니겠죠? 팝업 퀴즈에 라벨을 붙인 적이 있나요? 무엇? 실제로 팝업 퀴즈에 라벨을 붙인 적이 있습니까? 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부활절 방학이 끝난 후 수요일에 퀴즈를 다시 내드릴까요? 당신은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부활과 그 부활이 개인적으로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에 미치는 의미와 의미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짧은 휴식과 안식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부활하신 아들과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문서들을 살펴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유익한 자료를 들을 때 인내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질적이며, 처음 듣고 읽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통해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오늘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지속적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퀴즈는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좋아요, 앞으로 몇 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발표만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았습니다. 최종 시험은 네 가지 시험 모두에 걸쳐 포괄적이지만 좋은 소식은 처음 네 가지 시험의 내용만 다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서에서 시험한 내용이나 복음서에서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최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 시험은 처음 4개 시험의 자료에 대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는 네 번째 섹션 시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결승전 전 주의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월요일에 발생합니다.

아마 월요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점은, 이것이 여러분을 정말 속상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기말고사 전 일주일 내내 수업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요일이든 월요일 외에는 수업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5월 9일, 9일이에요. 5월 9일 월요일은 아마도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섹션 4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을 모니터링하고,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모니터링할 보조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은 콜로라도 기독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주말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곳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신약성경을 놓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말고사 주간에 돌아올 것이고 기말고사를 위해 우리에게 지정된 시간이 무엇이든 그것이 언제가 될 것입니다. 즉, 다음 주 언젠가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 언젠가 4번 시험에 대한 자료를 다루고 준비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추가 학점 검토 세션이 다시 있을 예정이며, 이 세션은 다시 월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내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4번 시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고, 분명히 금요일에도 수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기말고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결승전을 위한 리뷰 세션이 있나요? 결승전을 위한 리뷰 세션이

있나요? 아마도 거기에서, 예, 최종 시험에 대한 추가 학점 검토 세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추가 신용 검토 세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석해 보시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말고사 퀴즈 성적처럼요? 퀴즈 성적이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앉아서 과거에 무엇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분율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네,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응. 우리가 치른 테스트에 접근할 수 있나요? 이전에 응시한 테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사본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험 사본, 객관식 문제 부분을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내년에는 거기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과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지 의심스럽다.

그러니 그것들은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시험을 치른 후에 그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공부하기 위해 선택하거나 그 이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결승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최종 검토 세션도 있을 예정입니다. 좋아,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기를 바라.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신약의 마지막 책임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짧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제임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를 말했듯이 첫째, 일반적으로 학기가 다가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신약성서 수업은 때때로 바울의 서신에 그다지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고린도전서와 같은 책들에 폭 빠져

있는데, 아주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들은 신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까웠고 바울의 가르침과 서신에 너무 가려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종종 아주 짧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와 같은 편지들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는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내용들은 요한계시록과 바울의 편지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종종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평소에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성서의 다음 편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우편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서 베드로전서라고 라벨을 붙인 편지를 꺼낼 것입니다. 자, 이 편지에서 흥미로운 점은 얼핏 보면 그 편지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James와 마찬가지로 편지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여러분, 편지의 이름은 쓴 사람의 이름에 따라 지정됩니다. 편지의 수신자.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 익숙합니다. 모든 편지의 이름은 받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 지정됩니다. 그러나 야고보, 베드로, 요한 1서, 2서, 3서는 실제로 편지를 쓴 사람에 따라 이름이 붙거나 이름이 붙여질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 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 편지가 나온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기록된 것 같습니다. 즉, 적어도 일부 서신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같은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교회는 널리 퍼져 있거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그래서 베드로가 시작한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포로들에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James에게서 본 것과 동일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1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제 넓은 지리적 영역에 퍼져 있는 매우 광범위한 독자 그룹에게 연설하고 있는 교회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의 이러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망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는 달리 베드로전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하는 일 중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언어를 구약의 언어에서 가져와 이제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독자들을 선택받은 자들, 즉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언어로 묘사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실 것이며, 구약성서에서 이 모든 언어를 취하여 이제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실 것이며, 이제는 두 나라로 구성된 교회라고 불리는 초문화 집단에 적용하실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익숙해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구약의 언어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교회를 지칭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적용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상황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9절에서 저자는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신약성서의 다른 책들이 일종의 황제급 또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박해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종종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에 거리를 행진하는 군인 군단이 있었고 그들은 집집을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거리로 끌고 나가 구타하거나 참수하거나 경기장으로 끌고 갔다는 개념을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에게 잡아먹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1세기에는 자주 사실이 아니었고 베드로전서의 경우에도 확실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제가 방금 읽은 5장 9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런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비공식적이고 지역적인 종류의 압력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의 대부분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거리를 행진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 구타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것.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며 순응하라는 지역적 압력과 일종의 배척, 조롱, 그리고 아마도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질 육체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위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로마 군인들을 파견한 황제가 승인한 공식적인 황제 차원의 박해가 아닐 것입니다. 지역 수준이며 로마 제국 전역에 더 산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더욱이 이 편지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5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편지를 끝맺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택하신 바벨론에 있는 너희 자매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때 바벨론은 로마라는 도시를 가리키는 암호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구약의 용어를 다시 사용하여 로마라는 도시를 바벨론으로 명확하게 식별하는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그 용어는 1세기 로마라는 도시에 적용되었고 베드로는 그 점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 해 보면 베드로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의 사도 중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겪었을 것과 같은 종류의 배척과 조롱과 고통을 단순히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부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장과 1절에서 우리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분산된 포로들에게 그 다섯 이름이 모두 로마의 속주임을 읽었습니다. 물론 수업 첫 주를 기억하세요. 물론 아주 오래 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 제국과 로마 정부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그들이 거대한 제국을 관리한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지방으로 나누고 이 5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중 하나를 언급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아마도 로마의 갈라디아 지방 남부에 있는 교회 집단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갈라디아 지방 전역에 여러 번 흩어져서 지역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웃 이교도들의 손에 온갖 종류의 박해와 조롱, 사회적, 육체적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들이 아무리 비공식적이고 다양하고 퍼져나가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적대적인 환경에서 확고하게 신앙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종류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굳건함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서신의 목적, 즉 서신의 목적은 베드로 전체에 걸쳐 그 공간에서 불균형적인 횡수로 나타나는 주제를 지적함으로써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을 당하다 동사 형태, 베드로가 고난을 위해 사용한 동사 형태는 41회 중 12회, 동사 형태는 신약 전체에 걸쳐 동사로 41회 나타나며, 그 중 12회는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만큼 짧고 작은 책이 신약성경 전체와 비교될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동일한 단어의 명사 형태, 즉 베드로가 사용하는 고난에 대한 동일한 어근은 명사 형태가 4분의 1로 나타나며, 신약성서에서 4번째로 나타나며, 그 중 4분의 1이 나타납니다. 16개 중 4개는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관련된 이 용어의 용법은 베드로의 목적과 그의 주요 주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가 말하려는 것 중 하나는

기독교인을 격려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통, 특히 이교도 사회의 손에 직면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공식적인 황제 차원의 박해 지점까지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사례의 발생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쓸 필요성을 볼 만큼 충분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두 부분으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 처음 세 장에서 베드로는 실제로 독자에게 호소합니다. 흥미롭군.

그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참을 수 있으라고 그들에게 즉각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처음 세 장뿐만 아니라 책 전체에 걸쳐 베드로가 가르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엮여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 고난 속에서도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성서의 인용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한 일 중 하나인 2장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묘사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피터가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 이러한 적대감에 대응해야 하는 방법은 순결함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 스스로 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대신에 공동체, 즉 거룩한 성전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적절한 행동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 압력과 고통에 굴복하려는 시도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드로가 부르는 성전인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나 둘째, 4장과 5장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인내를 촉구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하는 주요 일 중 하나는 보복하지 않은 사람의 예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유지함으로써 인내하라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보복하지 않은 예수의 예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활절에 자주 인용하는 고난받는 종의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이 그리스도처럼 보복과 보복을 삼가야 함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점을 암시합니다. 설사 그들이 직면하고 조롱하는 산발적인 박해와 압력, 배척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터가 설정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자신의 설명,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과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사이를 번갈아 가며 반복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명, 직설, 경고 섹션 또는 명령문이나 명령 사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피터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설명과 권고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설교할 때 베드로가 가르친 핵심이 단지 일종의 반사적 행동이나 수동적 행동, 또는 장기적으로 파고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의 지시는 모두 적절한 기독교 증언과 상황, 적절한 기독교 행동, 거룩함 유지, 공동체 만들기, 보복 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에 관한 베드로의 지시가 오히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인내하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증언을 유지하고 적절한 그리스도인 행동을 유지해야 하며, 그들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순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가르침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그가 교회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긴 설명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에게로 오라. 그리고 산 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보배롭다, 혹은 더 잘 번역되어야 한다고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예가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잇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건물뿐 아니라 성전에 비유함으로써 베드로가 구약성경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또 다른 유대인 운동인 콤란 공동체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슬로건을 가질 수 있었던 에세네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수합시다.

Essenes는 사막으로 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Qumran 공동체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 화를 냈고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 성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오셔서 물리적인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실 때까지의 임시 기간 동안 영적인 성전이 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콤란 문헌에서 당신은 공동체 구성원을 돌에 은유적으로 비교하고 공동체를 사원, 집, 건물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이 언어를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그가 자주 교회를 성전에, 지체들을 성전을 이루는 돌에 비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구약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와 그분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앗수르와 바벨론으로 끌어들여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사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재건하고 회복하실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성서는 성전과 재건된 성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교회,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약성서에서 성전의 물리적 이미지를 취하여 이제 그것을 사람들 자신인 교회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리적인 구조나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부차적인 설명으로, 이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물리적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는 이제 재건된 성전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재건된 성전이 이제 물리적으로 재건되는 또 다른 성전이 아닌 예수님과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고 세워졌습니다. 더 나은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지금 짓고 있는 교회를 통해 재건되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영적인 거쳐,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루기 위해 세워지는 산 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참된 장소는 더 이상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교회를 이 건물,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의 목적, 즉 이것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성전임을 상기시켜줌으로써 그들이 베드로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략 중 하나는 단지 그들이 고난을 견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유지하고 적절한 그리스도인 행동으로 간증을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 일부는 구약의 성취로 그들이 실제로 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순수한 성전이라면, 특히 그들이 처해 있는 적개심과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째,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탈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배된 사람들은 유배자로 묘사되어 탈구를 겪고 박해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을 이 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성원들로 구성된 이 집은 그들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갈 곳이 필요하다면, 속할 곳이 없다면, 세상이 적대적인 곳이라면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당신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의 일부이며, 각 구성원은 건축의 돌입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도 순수함과 거룩함에 대한 동기 부여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세상과 적대적인 환경에 흠어져 있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도 부여됩니다. 아마도 신약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 중 하나가 베드로전서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그것은 흥미 롭습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저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소수 곧 여덟 명이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설교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던 날에 있던 자들이었다고 합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설교합니까? 그들은 감옥 어디에 있나요? 예수께서 언제 거기에 가서 이런 일을 하셨나요? 그리고 이것이 노아와 창세기 6장, 노아와 방주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대체 피터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생각에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 내용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이것의 일부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사도신경의 한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마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함께 인용해보자.

이것은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신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문구는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른 세 가지 묘사는 신약에서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는 것과 분명히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신다는 언급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서 그들에게 설교하셨다는 이 언급은 사도신경에 이 진술을 포함시키는 정당성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알면 우리는 종종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고 지옥에 가신다는 묘사로 읽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때와 다시 살아나실 때 사이에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서 뭔가, 어쩌면 두 번째 구원의 기회 같은 것을 설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나요? 이제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내가 해냈으니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문제의 일부는 이것이 단지 두세 절의 범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언어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전서 3장은 아마도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도신경의 이탤릭체 부분 뒤에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다른 곳도 몇 군데 있지만 이것이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손을 들었나요? 지옥과 천국의 심판 사이에 이런 생각을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까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하데스를 기다리는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데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살아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점에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그들이 이 시점에서 천국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들을 이 기다림에서 데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언어로 언급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세우라. 그래서 그것은 그분의 구원의 복음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전파함으로써 언급된 것 같습니다. 확신하는.

그래, 네 말이 맞아.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심판 장소인 지옥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며 그 사이에 있는 저수지에 있기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하실 수 있으며 그들은 그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흔히 이해되는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노아를 통해 설교하셨다고, 노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영이고 죽었고 영이지만 살아 있을 때에는 누군가가 설교했을 때 누군가가 제안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노아를 통해 지금 영이 된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실제로 조롱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를 통해 지금은 죽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혼은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나는 이 텍스트에 대해 강의 계획서에 설명되어 있는 일련의 질문을 함으로써 매우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이 일을 하셨는가?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예수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러면 19절은 “어느 것에서?”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그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상태에서, 즉 자라났을 때, 그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그래서 나는 이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 일은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결과로 다시 살아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이것은 예수께서 성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시기 사이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이 영들에게로 가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말하는 내용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그의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영어 번역본을 읽으면 18절과 19절에서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내용이 마음에 듭니다. 이르시되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곧 부활이니라 하니 이는 곧 영으로 살리심을 말하는 것이니 곧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때에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문제의 적어도 일부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가 전파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이 영들이 누구이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물론 모세가 아니고, 노아가 아닐 때입니다. 노아가 살아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노아를 통해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어느 시점에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이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하는 것입니다. 음, 이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내 생각에 그는 아마도 콜로라도에서 산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음, 내 말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중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루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이 아버지 앞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육체적인 부활의 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인 그분의 육체적 부활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약성서 전체에 이에 대한 좋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 언어 중 일부가 구약성경의 언어이고 분명히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그렇다면 그가 살아났을 때 이런 일을 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가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본문은 실제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든 내려가셨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올라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영들이 감옥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특정 위치여야 하는가? 피터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아래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로 생각하고 있나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에베소서로 돌아가면, 에베소서로 돌아가면 우리가 가장 가능성 있는 말은 무엇이였을까요? 나는 조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은 악한

세력과 악령이었습니다. 에베소서 어디에서 발견되었는가? 바울은 땅의 왕국 뒤에 있는 하늘에도 왕국을 위치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 영들이 누구든지 선포하거나 맞서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천국에서 설교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옥이나 다른 곳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비슷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들은 하늘 영역에 있으며, 하늘 영역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론가 내려가셨다거나 올라가시는 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어디로 가셨는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영들은 누구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피터가 이것을 해석하는 데까지 내려온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을 기억하신다면, 홍수를 촉발한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 문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중에 감옥에 던져져 심판을 기다리는 영적 존재 또는 천사적 존재로 거의 만장일치로 묘사됩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창세기 6장의 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힌 영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무엇을 전파하셨나요? 아마도 예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 번역된 단어는 반드시 그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매우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다는 것...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죄와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텍스트를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6장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 딸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의.

다시 말하지만, 구약 이외의 유대 문학과 심지어 일부 기독교 문헌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적인 천사 존재나 악마적 존재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최근에 읽었을 에녹서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Google 1 Enoch를 검색하여 영어 번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서 6장에서 에녹서는 창세기 6장의 홍수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때에 사람의 자녀들이 번성하니, 어여쁜 딸들이 나는데,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탐하였다.

그래서 에녹전서 6장과 에녹전서에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적 존재로 이해하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같은 책인 에녹서 21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에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정경에는 들어가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다시, 에녹은 창세기 6장의 사건인 홍수를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하늘의 별들 가운데 있으며, 수에 따르면 천만 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 이곳은 천사들의 감옥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천사들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창세기 6장에 근거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2 피터 2,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책.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보내어 흑암의 사슬에 가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다시, 베드로전서 2장 전체를 보면,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대한 설명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천사들의 개념이 이제 그들은 사슬에 묶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

신약성서의 또 다른 본문과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명확한 본문만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6장, 계시록 이전의 작은 책.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그래서 내 요점은 당신이 창세기 6장에 근거한 이 전통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경계와 명령을 범하여 죄를 지었고, 따라서 비유적으로 사슬에 묶인 천사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사용하여 이

심판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천사들과 영들은 범죄하여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사슬에 매였으니 이제 심판이 이르렀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천사들과 마귀들에게 가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피터가 이것이 모두 문자 그대로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내 생각에 피터는 단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빌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기가 있었고 그의 독자들은 이 아이디어가 여러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문학. 이게 그냥 대중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지금은 베드로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과 같은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보다 훨씬 더 높이 되셨으니 이제 저희가 그의 발등상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저희를 이기시고 이기셨다는 증거니라.

나는 이것이 단지 피터가 같은 말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감옥에 있는 이 영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들만이 유일한 영인지, 다른 영들은 어땠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승리의 날.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것이 제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고,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끈적한 구절을 정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이 배경, 그가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선포하셨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혼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현재 투옥되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악한 천사 존재들에게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르렀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당신의 노트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터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입니다. 내 말은, 그 사람이 뭘 하려는 거지? 여러분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고통당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것입니다(20절). 그는 이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저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피터가 비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적대적인 사회에서 소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듯이, 그의 교회도 로마제국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소수에 불과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주제가 이제 베드로의 독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들 역시 이 적대적인 상황과 적대적인 환경에서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악의 세력을 이기셨으니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독자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적대적인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인간 차원의 로마 통치자와 권세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위협, 즉 하늘나라의 통치자와 권세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이 진정한 위협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독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신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이로써 모델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전심으로 증거하고 합당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적대적인 환경에서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해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괜찮은. 제 생각엔 그게 실제로 좋은 전환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금요일에 우리는 두 권의 책을 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실제로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전서에 관한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31번의 Dave Mathewson 박사였습니다.

신약 역사와 문학의 베드로전서 31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